

“우후죽순’ 4·3 기념사업 개선을”

도, 제주 4·3기념사업 기본계획 수립 연구 보고서 공개 5년 간 509건 기념사업 진행... 사업비 900억여 원 투입 유족·도민, 가장 시급한 과제로 ‘유적지 정비·관리’ 꼽아

제주4·3 희생자와 유족을 추모·위로하기 위해 진행되고 있는 각종 4·3기념사업들이 확장성에 한계를 보이고 있다는 지적이 이어지면서, 제주도가 ‘기념사업 기본계획’ 수립 연구를 통해 가이드라인을 제시했다. 또 유족과 도민 대상 설문조사 결과 1순위로 추진돼야 할 4·3 기념사업으로 ‘유적지 정비·관리’가 꼽혔다.

제주특별자치도는 ‘제주 4·3기념사업 기본계획(2023-2027년)’ 수립 연구를 최근 공개했다.

이번 용역은 제주4·3 70주년이던 2018년을 기점으로 각종 기념사업이 우후죽순 생겨나면서 유사·중복 사업, 목적 외 사업까지 생겨난다는 지적에 따라 사업을 정비하는 등 내실화를 갖추기 위해 지난해 시행됐다. 연구는 재단법인 한국자치경제연구원 등이 맡았다.

현재 진행 중인 4·3 기념사업은 유형별로 ▷위령제 등 추념사업 ▷유적지 순례사업 ▷유적지 정비·관리 등 지원사업 ▷문화·학술 기념사업 ▷도민 평화·인권교육사업 ▷희생자 및 유족 위로·복지사업 ▷국내외 평화교류사업 등으로 나뉜다.

연구진은 2018년 이후 추진된 기념사업에 대한 실태조사와 함께 유족과 도민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진행했다. 이를 바탕으로 4·3기념사업 기본계획을 수립했다.

기념사업 추진 현황을 종합하면 5년 간 총 509건의 기념사업이 진행됐다. 연도별로는 2018년 102건, 2019년 103건, 2020년 92건, 2021년 102건, 지난해 110건 등이다. 이에 따른 사업비는 약 900억원으로, 이중 희생자 및 유족에 대한 위로·복지사업비에 421억원이 투입됐다.

유형별로는 문화·학술 기념사업이 149건으로 가장 많았고 평화·인권 교육사업(31건)과 유적지순례사업(32건)이 가장 적었다.

연구진은 “일부 지속성 기념사업은 해마다 동일한 패턴으로 반복·추진되는 경향이 있다”면서 “사업 콘텐츠의 변화를 모색하거나 성과 평가 피드백을 통해 개선이 요구된다”고 제시했다.

4·3기념사업의 추진방향을 정립하기 위해 유족과 도민 의견 수렴 절차도 거쳤다. 설문조사는 유족 143명, 도민 377명 등 총 520명을 상대로 지난해 8월 26일부터 9월 14일까지 20일 간 수행됐다. 조사는 자기기입식 설문지를 활용해 전문조사원의 인터뷰를 통한 1:1 개별조사로 진행됐다.

우선 ‘제주 4·3 및 4·3기념사업에 대한 인지 여부’를 묻은 결과 유족은 ‘매우 잘 알고 있다’가 61.5%로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도민은 ‘잘 알고 있다’가 43.8%로 가장 높게 나타났다. ‘4·3에 대한 관심이

없거나 잘 모르는 이유’에 대해 유족은 ‘교육·홍보가 부족해서’가 100%로 나타났으며, 도민은 ‘내 삶과 동떨어져 있어서’가 41.4%로 가장 높았다.

특히 모든 제주4·3기념사업을 통틀어 유족과 도민 모두 1순위로 추진해야 할 사업으로 ‘유적지 정비·관리사업’을 꼽았다. 유족들은 2순위로 위령제 등 추념사업을 꼽았으며 도민들은 2순위로 문화·학술사업으로 의견을 제시했다.

4·3 유적지 정비·관리 상태에 대한 만족도를 묻은 결과에서도 유족과 도민 모두 ‘불만족’을 75.5%, 82.2%로 매우 높게 꼽았다. 관리상태에 불만족하는 이유로는 유족의 경우 ‘유적지 훼손, 정비 부족’(38.9%)을 꼽았으며 도민은 ‘청결하지 못하다’(26.1%)를 높게 꼽았다.

제주4·3기념사업이 가장 크게 기여한 점으로는 유족과 도민 모두 ‘4·3 희생자 명예회복과 피해보상’을 각각 47.6%, 47.5%로 가장 높게 선택했다. 제주4·3기념이 추구해야 할 핵심 가치로는 유족과 도민 모두 ‘추모·기억’을 각각 35.8%, 32.8%로 1순위로 꼽았다.

연구진은 실태조사와 도민 인식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유형별 4·3 기념사업 추진 방향을 담은 5개년(2023-2027년)계획을 수립했다. 기본계획은 8개 유형으로 구분해 총 70개 사업으로 분류했다. 연구진은 “5개년 기념사업은 전 도민이 참여 가능한 방향에서 재설정했으며, 중복·유사 성격의 기념사업은 통합 또는 사업 내용의 차별화 전략을 유도했다”고 덧붙였다. 강대희기자



해병대원 마늘수확 자원봉사 본격적인 마늘 수확철을 맞은 10일 서귀포시 대정읍의 한 밭에서 대민지원을 나온 해병대원들이 마늘을 수확하고 있다. 강희만기자

제주-부산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 규탄 ‘맞손’

“경제 전반 큰 위기... 정부가 국민 불안 해소해야” 해양 모니터링 체계 구축·대응 매뉴얼 마련 요구

일본 후쿠시마 원자력발전소 방사능 오염수 방류로 직격탄을 맞은 제주와 부산이 손을 잡았다.

제주특별자치도의회 농수축경제위원회(위원장 강연호)와 부산광역시의회 해양도시안전위원회(위원장 안재권)는 10일 제주도의회 대회의실에서 일본의 후쿠시마 원전 방사능 오염수 방류 결정을 규탄하는 공동성명을 발표했다.

공동성명서에서 양 의회는 “제주와 부산은 대한민국의 대표적인 해양관광도시”라며 “방사능 오염수

가 방류된다면 제주도와 부산시의 경제 전반에 큰 위기를 맞이할 것”이라고 우려했다.

이어 “정부는 이러한 위기의식을 고려해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방류 대응을 위해 해양 방사능 조사 확대하고, 수산물에 대한 방사능 검사 강화해야 한다”며 “아울러 방사능 오염수에 대한 객관적인 검증 절차에 대해 일본 정부에 강력히 요구하는 등 국민의 불안을 해소해야 할 것”이라고 촉구했다.

아울러 양 의회는 정부의 방사능

검사를 위한 해양 모니터링 체계 구축 강화 및 모니터링 결과를 실시간 공유, 방사능 검출 시 즉시 대응할 수 있는 매뉴얼 마련 등을 요구했다.

공동성명 발표 후 강연호 위원장은 “이번 부산시의회의와 공동성명은 일본의 일방적인 후쿠시마 원전 방사능 오염수 해양방류 반대를 위한 시·도의회차원의 공동대응 첫 발걸음”이라며 “향후 전국 17개 시·도와 서로 협력하면서 후쿠시마 원전 방사능 오염수 해양방류 철폐를 위한 공동대응과 함께 생업을 포기하려는 어업인을 위한 수산분야 피해대책 특별법 제정을 강력 촉구하겠다”고 밝혔다. 이태윤기자

제주평생교육카드 선정자 8월 31일까지 발급 신청

제주특별자치도가 전국 광역자치단체 최초로 시행하는 제주형 평생교육바우처 사업의 지원 카드인 ‘제주평생교육카드’가 10일 발급을 개시했다.

제주도는 민선 8기 공약사업으로 도내 청년들의 평생교육 격차를 해소하기 위해 총 9억원의 예산을 투입해 제주형 평생교육바우처 사업을 추진 중이다.

제주형 평생교육바우처 사업은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한부모 가정 구성원에게 1인당 연 35만 원을 바우처로 지급하는 사업으로, 만 19-39세 청년층을 우선 발급 대상자로 선정했다.

도는 지난 2월 20일부터 4월 21일까지 읍면동 주민센터를 통해 접수받은 발급 대상 2646명을 최종 선정해 개별 통지했다.

선정자는 오는 8월 31일까지 신분증과 선정자 통지문자 또는 통지서를 소지해 도내 농협중앙회 지점에서 카드발급을 신청하면 즉시 카

드를 받을 수 있다.

발급받은 카드는 올해 12월 31일까지 연 35만원 범위 내에서 평생교육바우처 시스템에 등록된 평생교육기관에서 사용이 가능하다.

전국적으로 오프라인 평생교육기관 2683개소와 온라인 평생교육기관 272개소가 바우처 사용기관으로 등록됐고, 제주지역 평생교육기관 38개소가 속해 있다. 사용처의 상세 정보는 평생교육바우처 누리집(https://www.lllcard.kr)에서 확인하면 된다.

고대로기자 bigroad@ihalla.com

제주4·3 국제적 해결 촉구 결의안 국회 발의

제주4·3의 국제적 해결을 촉구하는 결의안이 국회에 발의됐다.

더불어민주당 위성곤 국회의원(서귀포시)은 10일 ‘제주 4·3문제의 국제적 해결을 위한 대한민국 정부와 아메리카합중국의 공동조사와 책임있는 조치를 촉구하는 결

의안’을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

이번 결의안에는 위 의원과 제주 지역 송재호·김한규 의원을 비롯해 더불어민주당과 무소속 의원 등 44명이 공동발의자로 이름을 올렸다.

제주4·3은 제2차 세계대전 이후 냉전체제가 불러온 비극이라는 국

제사적 의미를 가지고 있음에도 국제적 해결은 미흡한 실정이다.

이에 4·3 단체들도 평화와 인권적 관점에서 제주 4·3이 후세에 기억될 수 있도록 4·3 문제에 대한 국제적 해결을 촉구하고 미국 바이든 정부 출범 이후 미국, 일본 4·3 유족회 등을 중심으로 미국 정부가 4·3에 대한 진실을 밝혀줄 것을 공식 요구하기도 했다. 국회·부미현기자

만감류 매달기는 다인쿨고리!

매달기작업 일손을 줄이고 싶으신 분!
더울 때 작업을 줄이고 싶으신 분!
한번 매달면 몇 년이 속편한,
다인‘쿨고리’가 있습니다!

쿨고리의 장점

- 실제 매달기 작업의 시간이 확 줄어듦→2년 안에 인건비 절감액으로 자체구입비 회수가능
- 쿨고리 작업세트로 한 번만 던져 설치하면, 3년 이상 철거 없이 매달기 고리로 계속 활용가능.
- 쿨고리 작업세트는 언제든 미리 설치 가능. 즉, 더워지기 전, 덜 바쁠 때, 인력 쉽게 구할 수 있을 때 언제든 미리 작업해 둘 수 있음.
- 고정판을 이용하여 높이조절이 쉬움.
- 수확 후 회수도 간편.

쿨고리+고정판+안파밴드를 셋트로 구입해 사용합니다. 나무 1개에 4-6세트 사용됩니다.
쿨고리에 밴드끈의 한쪽을 묶고, 반대쪽에 고정판을 묶은 후 설치해 매달기 고리로 활용합니다.

054-652-3725 www.dainfine.com

제주 각 지역 농협에 절찬 판매중

JM 그룹 제이엠신용정보

빌려주고 못받은돈, 인상대금 등을 돌려받는 일은 제이엠에 맡겨주세요!!

‘한국씨티은행’ 자회사인 ‘씨티크레딧서비스’의 새이름

- 업계 최상 신용조회, 부동산조회 서비스
- 경력이 풍부한 추심직원의 신속한 회수
- 전국 40개 지점망을 연계한 최고의 회수율
- 2022년 신용정보 소비자 만족부문 대상 수상

대상채권 : 물품대금, 공사대금, 용역대금, 외상대금, 투자금 등
민사채권 : 판결문, 공정증서 등 받고 미해결된 개인간의 대여금
금융채권 : 금융기관 여신 및 카드대금 등
채권매입상담 : 금융채권 매도 상담(매입제휴처 연계)

제이엠신용정보 제주지사

무료상담 ☎ 064)702-0500

* 직원모집 : 영업전문직, 추심전문직을 상시 모집합니다.

신용정보 소비자 만족 부문
2022년 대한민국 명품 브랜드 大賞